

## 민심의 촛불 ... '박대통령 퇴진' 들불로 번지나

**뉴스초점**  
**'최순실 정국' 주말이 분수령**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 규모와 열기가 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7면>  
5일로 예정된 촛불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수습책으로 내놓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에 대한 민심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정치권은 주말 촛불 집회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주말 집회가 경찰이 예상했던 4000명을 훨씬 웃돈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2만명)이 참

광주·서울 등 전국서 야권 잠룡들 참석 대규모 시위 예고  
故 백남기 농민 광화문광장 영결식 겹쳐 폭발력 클 듯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고백·사과·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가했다는 점에서 5일 촛불 집회는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번 주 내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고, '비선 실세'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민심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는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 수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세대와 정치적 성향을 넘어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진술한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등 정국 수습책에 대한 민심의 반감도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촛불 집회에는 그동안 정의 투쟁과는 거리를 뒀던 야당 의원들도 대거 동참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의 잠룡들도 이날 촛불을 든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3일 잇따라 공개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의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또 5일은 고(故) 백남기 농민 발인과 영결식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들도 대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촛불 집회 규모가 1차 집회의 3배 이상인 3만~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7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촛불 집회에 5만 명이상이 참가,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한다면 박 대통령의 정국 수습책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술한 고백과 사과, 검찰 수사

에의 협조, 실질적인 거국 내각 천명 등의 수순이 예상된다.  
반면, 촛불 집회의 위력이 예상에 못 미친다면 박 대통령은 보다 차분하게 정국 수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에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민심을 끌어모으기 보다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야권도 수권세력으로서의 비전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말 촛불 집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여부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송되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것”

새누리 관계자, 빠르면 오늘 대국민 담화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경우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달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열흘 만의 두 번째 사과 메시지가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최 씨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담화 형식 등을 통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주말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또 ... 靑,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정무수석 허원제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광옥(74·전주·사진) 국민대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또 새 정무수석에는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허원제(65·경남 고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남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

임 총리로 전격 내정한 데 이어 새 비서실장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 위원장을 발탁했다.  
후임 정책조정 수석의 경우 추후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 발족 광주·전남지역 정당과 시민, 사회, 종교 등 70여 단체로 구성된 '국정농단 현정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준)'가 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해 박근혜 퇴진 투쟁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광주교가 방음시설 특혜 논란 ▶6면  
신팔도유람-경기도 조선왕릉 ▶18면  
컵스 '염소의 저주' 풀었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국회와 협의해 거국내각 구성”

김병준 총리 내정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총리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받게 될 경우 정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김 총리 내정자는 “경제·사회 분야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영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밝히고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의 지명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과 새누리당 내 비박(비 박근혜)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